

‘춤추는 한국인’ 강행원 화백

30일까지 헤이리 갤러리 한길서

독도와 4대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화두이다.

문인화를 그리는 강행원 화백(65)은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한국의 전통춤으로 승화시켜 11월 30일까지 파주시 헤이리마을에 있는 갤러리 한길에서 13번째 개인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그가 저술한 회화 이론서 <한국문인화-그림에 새긴 선비의 정신>(한길사 펴냄) 출간을 기념하는 초대전이다.

강 화백은 전시에서 ‘춤추는 한국인’을 주제로 병신춤 승무 가면춤 북춤 선비춤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춤을 수묵과 담채로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4m, 세로 2m가 넘는 화폭에 담아낸 거대한 소 그림이다.

“이 그림은 인간의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그렸던 선종화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절명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찾을 것들에 대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강 화백은 우주가 한 몸이기에 잃고 찾을 것이 따로 없는데 서로 고집하여 갈등하는 사회를 돌아보고자 심우에 비유한 소를 그려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다.

첫 번째는 독도문제다. 강 화백은 독도 위에 펼쳐지는 태극기를 그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소리 없이 외치고자 했다. 그리고 수행자가 추는 승무, 부채를 든 선비춤, 일본을 저단하는 모습을 표현한 칼춤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했다.

그 다음은 사대강. 사대강(死大江)이라고 적나라하게 쓰인 곳에서 춤꾼은 달을 쓰고 다리 양손에 든 천을 ‘X’자로 만들어 춤을 추고 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왜 하필 춤으로 표현했을까. 강 화백은 “춤은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희로애락의 몸짓이다. 인간 심연의 흥겨움과 비탄까지도 가장 극적인 바람을 몸으로 하는 동작이다. 더 크게 확대하면 동물이나 곤충의 움직임까지도 내포 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동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년시절부터 화가를 꿈꿔온 강 화백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화가를 지망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강 화백은 낙방을 하고 출가를 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 진학해 학생운동을 하다 퇴학을 당했다. 이후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정화 스님(1923~2003)을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새기며 재가수행자로서 정진을 했다.

그렇게 청년시절을 보낸 강 화백은 1977년 ‘진경산수 동양화전’을 첫 전시회로 열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도록 강 화백은 그림에 생명을 담아 넣을 이상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 난지도를 찾게 된 것. 이곳은 형형색색 온갖 것들이 나뒹구는 오브제의 천국이었다. 강 화백은 그때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서민의 주거와 삶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민중의 아픈 구석도 돌아보게 됐다.

강 화백은 “1980년대의 민중운동은 정권을 향한 직접적 저항이었기에 선명하고 뚜렷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권력화 된 언론에 눈과 귀가 가려지고 소통의 통로를 찾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 ‘춤추는 한국인’은 그가 바라는 이 시대를 자각하는 시민상이자 보살상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 강을 죽이는 개발논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온몸으로 표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우주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우리 터전을 평화롭게 보존한다면 우리는 미래불을 만나 영원할 것일



‘춤추는 한국인’으로 13번째 개인전을 연 강행원 화백



‘X’를 그려 4대강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춤꾼의 모습



‘불과 미래불’

니다.” 강행원 화백은 전시장의 맨 끝에 ‘봄과 미래불’이란 그림으로 장식했다. 겨울을 나고 활짝 핀 자못 빛 묵련 사이로 미륵부처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그 봄은 그가 바라는 세상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정토일 것이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옷칠과 달마도가 만나 천년해로

범주 스님, 국제선센터 1주년 초대전

사람 몸체만한 큰 붓으로 달마 대사를 일필휘지(一筆揮之)하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범주 스님(사진)이 새로운 장르의 선화로 전시회를 열었다.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35년간 선묵일여(禪墨一如)로 정진해온 스님은 선화(禪畫)에 옷칠을 접목해 1000년 이상 보존되는 ‘천년선화’를 소개했다.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1월 20일까지 목동 국제선센터 4층에서 전시회를 여는 스님은 100여 점의 달마도를 선보인다.

“선화를 어떻게 하면 오래 보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옷이 생각났습니다. 고분상과 팔만대장경이 오래 보존되는 이유가 옷칠 때문인 것을 보고 선화에 시도해봤습니다.”

범주 스님은 선화의 정신성과 1000년 이상 보존



하늘이 내린 최상의 물질이다. “참선과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수행의 기운이 달마도를 통해 전달되면 그 그림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 또한 맑아집니다.” 선화는 참선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전

하는 포교의 방편이니 옷칠을 통한 선화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하지만 범주 스님은 부적으로 팔리는 달마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불심을 전하는 최고의 방편인 선화가 절에서 달마도 부적을 만들어 파는 미신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불교를 기복신앙으로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때문에 올바른 포교방법으로서의 선화를 정립 할 때가 됐습니다.”

범주 스님은 1966년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뒤 출가해 용화사 범보선원에서 수행 후 한국불교를 미국에 확산시킨 숭산 스님을 모시고 로스앤젤레스 달마사 주지로 생활했다. 10여 년 해외 포교 후 1989년 귀국한 스님은 속리산 자락에 토굴을 지어 선묵화를 그려왔다.

범주 스님은 “작품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계층 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천년선화가 한국선 불교 정신을 표현하는 선예술품 한국불교가 세계에 알려지는데 좋은 방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범주 스님의 ‘달마도’

청림회 합창단 대상 수상

문화부,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불교합창페스티벌 신작잔불가경연대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이 후원한 행사에는 전국 19개 합창단 8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 대상은 대전 비구니 청림회 합창단(단장 이재기), 최우수상에는 조계사 청림회 소리마루 합창단(단장 이길수), 강원 신홍사 한마음 합창단(단장 이정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울 향림사 합창단(단장 정순근), 대전 광수사 반설합창단(단장 한현숙), 강원 낙산사 합창단(단장 신영숙), 강원 구룡사 합창단(단장 홍영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악경산도량 금강합창단(단장 변민희), 충주 사르나트 레이디스싱어즈 합창단(단장 범성 스님), 대구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악사 가용빈가합창단(단장 곡병숙) 등 총 7개팀이 수상했다.

지휘자상에는 김태환 충주 사르나트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 지휘자와 박성규 서울 향림사·강원 신홍사 합창단 지휘자가 수상했다.

상금으로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지휘자상 50만원이 수여됐다.

이나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문	담애티스
4	엄마수업	법륜	휴
5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6	산승불의	유철주	불광출판사
7	네가 던진 돌은 내가 꺼내라	기후	이자리
8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9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10	마음공부 첫걸음	김명우	민족사

※ 불서출판 유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뱀나무 재질

움직임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 (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후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시음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 (佛祖正脈眞鏡)과 정맥전법계 (正脈傳法儀)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